

전문가
기고

평화(平和)는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태섭(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얼마 전 폐막된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조로운 생활 탓이었는지 중계방송을 보는 재미가 제법 쓸쓸했다. 그런데 재밌게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은 게임의 내용 그 자체일까, 아니면 게임의 결과로서 메달의 색과 수일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 보다 후자, 즉 게임의 승패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을 듯하다. 그것도 최후의 승자로서 1등에게.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기쁨의 환호를 하고, 은메달을 따도 아쉬움의 탄식을 하며, 심지어 선수들 중에는 고개를 숙이고 슬픔의 눈물까지 흘린다. 상 처받은 패자의 슬픔을 딛고 환호하는 승자의 기쁨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진정 인간적이며 행복한 기쁨이라 할 수 있을까? 패자의 심정은 어떠한가? 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기는 게임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일까?

흔히들 올림픽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는 경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하다. 무엇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경쟁적인 삶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러한 경쟁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기도 한다. 이게 어디 사람으로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점차 인간적 심성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은 절실히 보인다. 경쟁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돕고 나누며 더불어 사는 협력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체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줄 아는 습관이라.

평화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平和인데, 이 平(平)은 평평할 평(平), 和(和)는 화(禾), 입 구(口)라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음미해 보건데, 밥을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자. 미운 사람에게는 떡을 하나 더 주자. 특히 경쟁에서 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어 먹자. 평화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



이태섭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약력**
- 서울대 정치학과
 - 서울대 정치학 박사
 - (前)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연구위원
 - (現)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김영숙님

부모님
칼럼

통일 위한 작은 발걸음 바라보며

김영숙(오윤정 기자 어머니)

2008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청소년평화통일기자들의 기자로 활동하고 싶다고 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엄마인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윤정이가 혼자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기에 기대 반 걱정 반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하고 나서 제가 엄마로서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윤정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하기에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엄마로서의 도리인 것 같았습니다.

5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윤정이가 청소년기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에 엄마로서 참 뿌듯하고 그런 저의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학교생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기자 활동까지 열심히 하니 너무 기특합니다.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은 윤정이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바뀌게 했습니다. 평소 통일이라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관심이 없었던 저희 가족이었지만 요즘은 자연스럽게 북측 관련 소식에 눈길이 간답니다. 윤정이가 기자단에서 활동하며 배운 북측의 문화나 현재 상황, 북측 주민들의 어려

움 등을 같이 얘기 하다보면 한반도에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북측에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더 많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머지않아 다시 좋아지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처럼 청소년들이 먼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면 통일도 결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이가 지금까지 기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과 같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해 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한 윤정리와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면서 이만 줄 일까 합니다.

오윤정 화이팅!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화이팅!